



### 상식과 진실과 정의에 목 마른 시대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리는 상식이 목 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인 말과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친부모가 친아들이나 친딸을, 양부모가 입양 아들이나 입양 딸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런 참담한 일은 또 얼마나 많을지 모를 일이다. 짐승 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 통신 문명과 언론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풍문이나 유언비어(流言蜚語)로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짜증난다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와 어린이들을 그렇게 학대해서 죽일 수 있는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된다. 어른들끼리는 이해가 충돌하고 원한이 쌓이고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조절장애 상태가 되어서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살인도 있을 수 있다. 집단적인 적대감과 광기(狂氣)가 한계를 넘으면, 상대방을 쳐부수고 없애야 할 적(敵)으로 규정하고 사람(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고 승리했다고 으시대는 전쟁놀이까지 수천년 끊이지 않고 하여 온 것이 인류 역사다.

그래서 가장 선하기도 하지만 가장 잔인한 존재가 인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가까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평소에도 이웃과 부모형제를 위하여 봉사와 나눔, 협동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선한 존재다. 그런가하면 지구 상의 모든 동물을 잡아 먹으면서 인간끼리도 온갖

범죄와 살인, 전쟁까지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대량 집단학살을 자행하면서 자랑으로 여긴다. 일만 열면 평화와 자유,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남의 평화와 자유, 행복을 깨버리고 파괴한다. 인간의 모순이요, 인간의 역설이다.

우리는 진실이 목 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편리하고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2천5백년 전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 같은 성인들도 거짓말 잘 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다.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국무총리 서리 등 독립운동을 하고 흥사단(興士團)을 창단하여 국민계몽운동을 했던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도 '죽어도 거짓이 없으라'는 가르침을 강조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낳아도 진실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슬픈 현실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하여, 특히 자기의 학력과 경력까지도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다. 참 골프다.

일일이 지적하면 싫어하고 싸우게 된다. 그러면 남과 적지 않게 되어 나도 힘들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도 잘못했어도 편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여기에 남이아 죽거

나 말거나, 끼리끼리, 코드, 편(便), 진영(陣營)이 등장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배타적인 강고한 동지로 뭉친 한 패가 된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좋은 일 하기도 바쁘고 쫓기는 세상에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자 거짓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공자(孔子)는 「중용(中庸)」에서 인간(선비)의 길로 예(禮)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라는 비례부동(非禮不動)을 강조했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서 "시경(詩經) 시(詩) 300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음(사무사, 思無邪)이다(子曰: 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고 했다. 성품이 올바르고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는 것을 사무사라고 한다.

우리는 정의(正義)가 목 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공정, 불공평, 부정, 불의, 불법, 탈법, 편법, 특혜,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손에 보고 밟 불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자칭, 타칭 '바보'라는 말이 호소력이 있고 유행하기도 한다.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공감을 일으킨다.

2천년 전에도, 천년 전에도, 현재도, 천년 후에도, 2천년 후에도 상식과 진실과 정의가 목 마른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탐욕을 자의든, 타의든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완전히 제어(制御)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인간과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발전하는 문화와 문명에 적응하여 인간의 욕망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무한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천년 전에도, 천년 전에도, 현재도 힘들고 고단하듯이, 천년 후에도, 2천년 후에도 인생 도처에 갈등과 투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칼럼

### 실종 경보 문자 제도 관심과 참여로 효과 극대화

기고

박은 유순천경찰서경무계경장



6월부터 시작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정보를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로 기본 정보 외에 사진 등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미담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송출시간을 오전 7시~오후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 대해

서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습적인 가해 전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되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 19 재난 경보로 인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

### 폭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

곽영천 여수소방서소방정대



시원하게 불던 바람은 사라지고 땅위로 아지랑이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요즘, 반대로 우리는 그 기세에 탐이 흐르고 그늘을 찾아 숨게 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여전히 마스크 안에 가둬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폭염을 맞이해야 할까?

지난 4월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울 때가 많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거고 전망했다. 게다가 유독 습도가 높고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해 구급활동 현황으로 폭염의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8월 오후 12시~6시 사이에 출동·처치 환자·이송 건수가 가장 많았다. 출동 장소는 집과 바다, 산, 논·밭 등이 차지했다. 처치환자는 60대가 전체의 약 20%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폭염은 여름 오후에 집과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폭염은 매년 더 강하고 변화무쌍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소방서는 5월부터 폭염대책을 추진 중이다. 온열질환자 대비 119구급대 출동태세 확립과 구급대원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고 폭염물품도 상시 가동되도록 병

원이송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폭염대응 예비 출동대를 운영해 구급차 부재 시에도 초기 응급처치가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서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의 폭염을 잘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행동요령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폭염 국민행동요령에는 어떤게 있을까?

행동 요령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평소 하던 걸 '더' 해주면 된다.

첫째, 수분을 자주 보충하자. 갈증과 관계없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커피나 음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나타날 수 있다. 야외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생수를 챙겨가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자.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보건소,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의 실내 무더위쉼터와 하천 둔치, 공원, 정자 등의 야외 무더위쉼터로 가서 휴식을 취한다.

셋째, 폭염의 기준, 온열질환 증상 등 폭염 관련 상식을 알아두자.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증상과 조치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고

###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김철웅 장흥군노인아동과노인정책팀장



이 글의 제목은 '우라카미 하루키의 마라톤에 관한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빌려 썼다. 하루키 역시 '레이먼드 카버'의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빌려 썼다.

전문 러너도 아닌 내가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달리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마라톤러 못지않기에 이를 심분 고려하여 읽어 주면 고

맷잡다. 아침마다 탐진강을 따라 달린다. 의지가 빈약해 달리는 일이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지만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 달리기에 재능은 없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끈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전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오래 달려고

저렇게까지 할까', '충분히 건강해 보이는데 달리기가 필요할까',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는 시기심 어린 눈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다.

매일 아침 달리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며 그러기 위해 달리기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꾸준히 달리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것이다. 심폐 기능 향상, 두뇌 건강, 혈관 건강, 골밀도 강화, 다이어트, 피로 해소, 우울증 치료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달리기의 효과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달리기가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달리기는 젊음이다. 신체는 이십 대를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바로 심폐 능력과 혈관 기능의 저하이다.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었지만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서 몸을 단련한다면 스무 살 같은 멋진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매혹적인 일이 또 있을까. 솔깃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귀가 얇

다는 생각은 접어두시라. 먼저, 예쁜 러닝화를 준비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운동화라면 좋다. 그 다음은 준비한 러닝화를 신고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참 쉽다.

이제부터는 탐진강이 도와줄 것이다. 처음부터 뛰지 않아도 된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달리기는 오래도록 멈춰버린 당신의 물줄기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숨이 느껴진다면 10km를 달려보자. 몸에 부담도 적고 자기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금세 달릴 수 있는 거라. 처음 달리기가 어렵지 몸에 배면 탄력이 붙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 요즘은 좋은 운동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많아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달리지 않아야 할 핑계를 찾을 수 없어 탐진강으로 간다. 내일 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지금이 달리기엔 더 좋은 때다.

<b>호남신문</b> www.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적동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